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실주동지와 함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수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과일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일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조성된 파수밭면적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면 과일의 정보당수확고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일생산은 지역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는 이미 마련된 파수와 축산, 축산과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파수원의 지역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일나무는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조

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육종하고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장과 과수연구부문의 역할을 더욱 높여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과일생산기지인것만큼 련관부문들에서 농장에 필요한 기계, 농약, 비료를 비롯한 설비자재들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과수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수종합가공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한그루의 과일나무를 가꾸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썩셈개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썩셈을 돌아보시면서 개발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진전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썩셈에 건설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전당은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수자화하여 보존관리하는 종합적인 자료구축기지인 동시에 각이한 자료들을 망을 통하여 임의로 볼수 있게 하며 정보공유, 정보교류도 할수 있게 하는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봉사기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전당에는 실내 및 야외과학기술전시장도 꾸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으로 훌륭히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면서 썩셈과 련결된 충성의 다리를 개선보수하고 백년홍수에도 끄떡없게

호안공사를 진행하며 특색있는 원림설계에 의한 식수사업과 교통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평양의 관문에 자리잡고있는 썩셈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일떠세우면 대동강의 풍치가 더욱 아름다와질것이며 평양시의 면모가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방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명당자리라고, 썩셈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썩셈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금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물미끄럼대를 보시면서 제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강하물미끄럼대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하였는

데 잘 만들었다고, 정말 멋있다고,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전국각지에 물놀이장들이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금강하물미끄럼대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시설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강하물미끄럼대가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먼저 설치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현대적인 금강하물미끄럼대를 설치해주면 야영생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해수욕을 할 때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기수, 돌격대의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여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애육원의 일군들, 교양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6.1절을 맞이한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원아들이 만경대유회장에 가고 유류관에서 국수도 먹었으며 일군들과 주변사람들의 관심속에 운동회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명절을 보내고있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원아들이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였다.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달래시며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의 불을 어루만져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

며 놀았느냐, 맛있는것을 먹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손가락을 꼬으며 자랑하는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쇠고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시였다.

천아버지앞에서 재물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노래를 불러드리는 원아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박수도 쳐주시였다.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저녁밥을 먹는 원아들에게 어느 음식이 맛있는가 물어주시며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가지로 해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명절음식차림표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잘 먹었지만, 원아들이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면 애육원의 교양원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당에서 대동강방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다음 해에는 새로 건설된 애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이라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애육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이 맡겨진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대를 이어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궁전 현관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소조운영실대를 료해하시였다.

무용소조원의 춤추는 모습, 가야금과 손풍금을 배우는 소조원들의 연주를 보아주시고 녀중창도 들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예와 컴퓨터, 수영, 풍구를 배우는 소조원들의 모습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과학자, 체육

인, 예술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을 올해중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개진에서 나서는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나라의 왕들인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사랑의 요람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자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